

Issue Brief

JEJU WOMA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36]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2019. 6. 14 | 발행인: 이은희

제주지역 결혼동향 및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시사점

선민정¹⁾

목 차

1. 서론
2. 제주지역의 결혼동향
3. 제주지역의 결혼가치관 변화
4. 정책적 시사점

1)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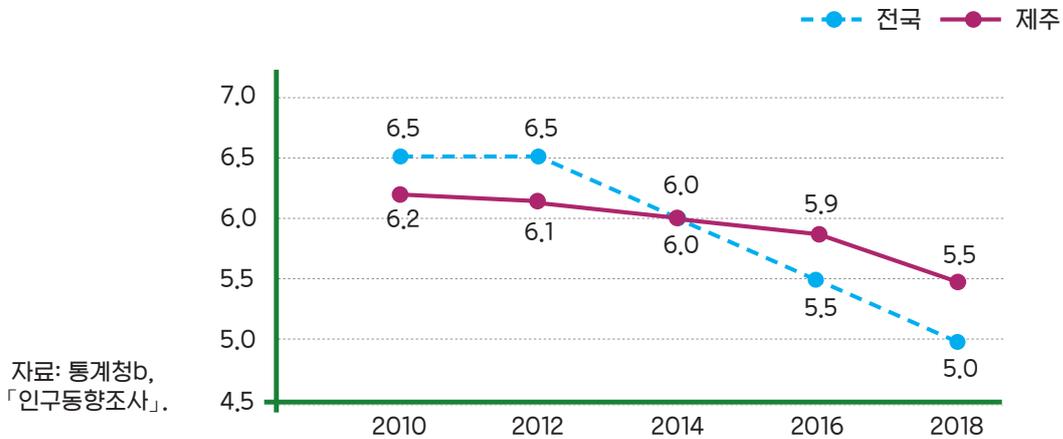
- 최근에는 결혼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혼인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과거와는 달리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 결혼가치관이 탈전통적으로 변화하면서 혼인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출생율은 낮아지는 등 가족의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김승권 외, 2009 ; 김혜영 외, 2010 ; 이삼식 외, 2015 ; 홍승아, 2016).
- 제주도에서도 결혼 및 결혼가치관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족 관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가족을 발현시키고 있음(신승배, 2018). 가족의 변화는 개인 및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확인하고 제주지역의 가족정책의 시사점을 발견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제주지역 결혼동향은 어떠하며, 결혼동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가치관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여 미래 제주지역의 가족 변화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가족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고 제주지역의 가족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2. 제주지역의 결혼동향

1) 점차 낮아지는 혼인율, 제주지역은 2016년 이후 가속화됨

- 제주도와 전국은 혼인율이 모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그림 1]). 특히 제주도는 2010년에 조혼인율이 6.2건으로 이후 완만하게 낮아지다가 2016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8년에는 5.5건으로 줄어들었음. 전국에서는 혼인율 감소의 급격한 변화가 제주도에 비해 일찍 발생했으며, 제주도는 최근에 이러한 변화를 유사하게 겪고 있음. 전국에서 혼인율 감소의 급격한 변화가 현재까지도 심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최근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선제적인 대비가 요구됨.
- 혼인율이 점차 낮아지는 이유로 많은 연구들에서는 경제적인 부담, 전통적 결혼가치관의 변화, 가사 및 육아 부담, 자아성취 등으로 보고 있음.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부담과 결혼가치관의 변화라고 함(민소담, 2018; 심인선, 2018; 홍승아 외, 2018). 제주도에서도 혼인율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밝혀내어 가족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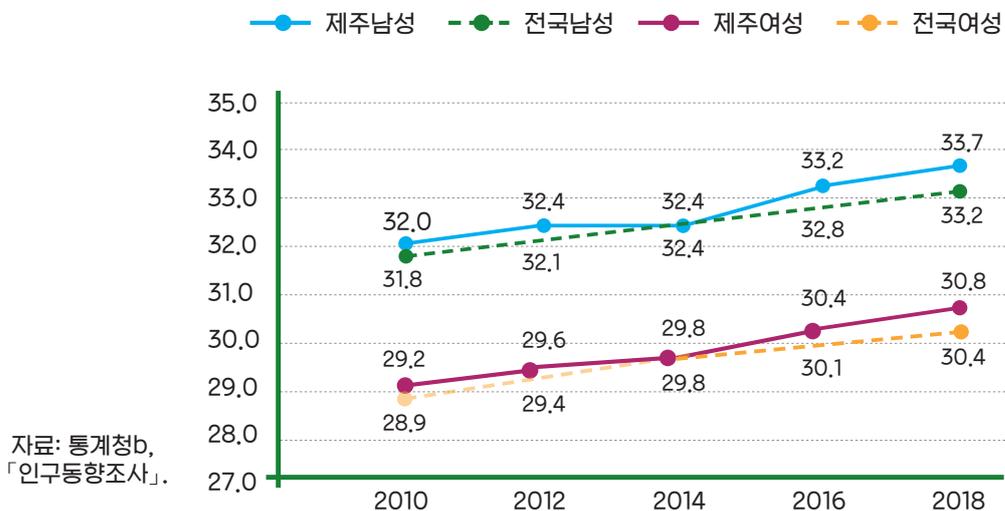
[그림 1] 제주도와 전국 초혼인율의 변화 (천명당 건)



2) 전국보다 지연되는 제주지역의 결혼

- 제주도는 전국보다 남녀별 초혼연령이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2]). 또한 제주도의 성별에 따른 초혼연령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여성은 29.2세, 남성은 32.0세였으며, 2018년에는 여성은 30.8세, 남성은 33.7세였음. 제주지역에서 지난 8년 사이에 여성의 초혼연령은 1.6세, 남성은 1.7세가 증가하여 남녀 모두가 결혼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지역의 지속적인 혼인율 감소와 더불어 초혼연령의 증가 현상은 가족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제주지역의 가족 변화에 맞춘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혼 동향이 나타나게 된 원인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림 2] 제주도와 전국 성별에 따른 초혼연령의 변화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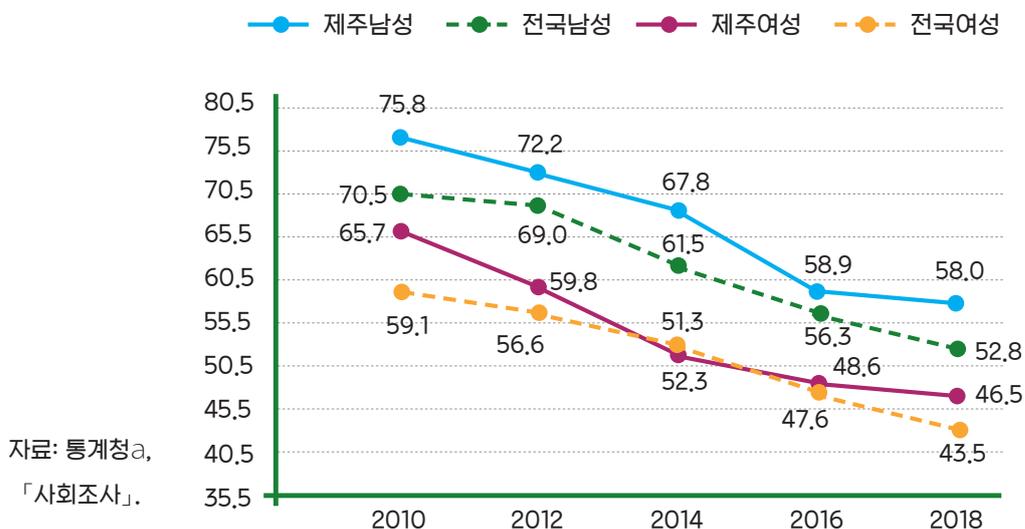


3. 제주지역의 결혼가치관 변화

1) 결혼필요성에 대한 인식 약화,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하게 나타남

- 제주도와 전국 남녀의 결혼필요성 인식은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임([그림 3]). 특히 제주도 여성에게서 결혼필요성 인식의 약화는 제주 남성 및 전국 여성, 전국 남성 집단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 제주도 여성의 결혼필요성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2010년에는 65.7%에서 2018년에는 46.5%로 19.2%가 감소하였음. 이는 8년 동안 제주도 남성은 17.8%, 전국 남성은 17.7%, 전국 여성은 15.6%가 감소한 것보다 더 큰 폭임.
-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 여성이 과거에는 결혼필요성 인식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으로 가장 급격하게 변화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음. 제주도 여성의 결혼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급격한 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지역적 정책 대응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예상됨.
- 또한 제주도의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임. 2018년에 제주 지역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을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10.8%p 더 높게 나타났음(통계청a, 2018).
- 이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필요성이나 결혼의향에 있어서 더 부정적인 이유는 여성의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인 향상과는 불일치하게 가정에서의 성불평등으로 인해 짊어져야 할 가사 및 양육 부담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김중백, 2013). 또한 여성들은 과거와는 달리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결혼으로 이러한 욕구를 침해받게 될 것이 예상되어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도 있음(홍승아 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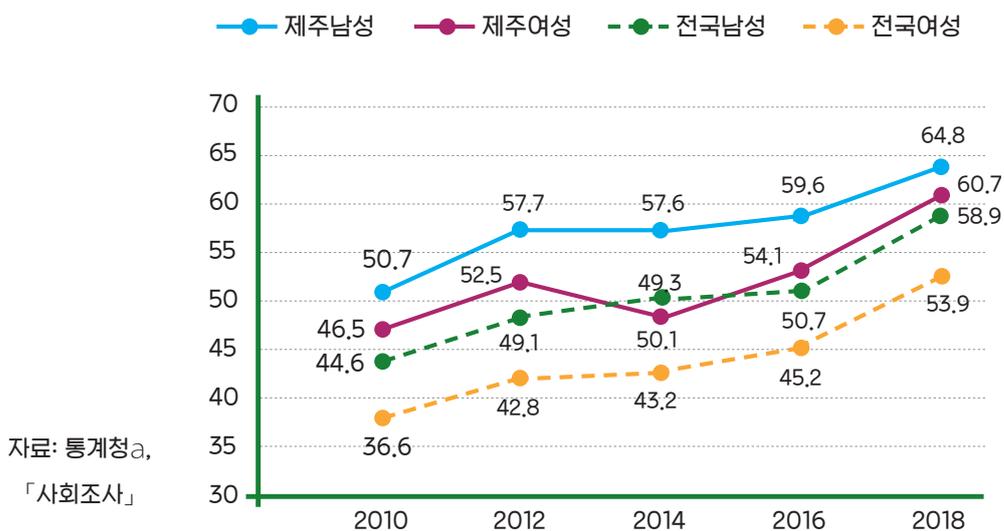
[그림 3] 제주도와 전국의 성별에 따른 결혼필요성 인식의 변화



2) 제주도는 전국보다 결혼 없이 동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강화됨

- 제주도는 결혼 없이 동거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국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음([그림 4]). 제주도 남성은 해당 인식의 긍정적 응답이 2010년에는 50.7%에서 2018년에는 64.8%로 14.1% 더 높아졌으며, 제주도 여성은 이러한 긍정적 응답이 2010년에는 46.5%에서 2018년에는 60.7%로 14.2% 더 높아져 주목할 만한 사항임.
- 제주도 및 전국은 각각 남성이 여성보다 이러한 인식이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남. 그러나 제주도 여성이 전국 남성보다도 결혼 없이 동거할 수 있다고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제주 지역의 동거에 대한 인식이 남녀 모두에게서 개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2018년 기준으로 제주도 남성은 64.8%, 제주도 여성은 60.7%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국 남성은 58.9%로 제주도 여성이 1.8%p 더 높게 나타났음.
- 제주도 남녀 모두가 전국 남녀보다 결혼 관련 인식이 더 탈전통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정책에 해당 변화들을 잘 반영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즉 제주도가 전국보다 동거가족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의 발현과 각기 다른 가족의 욕구들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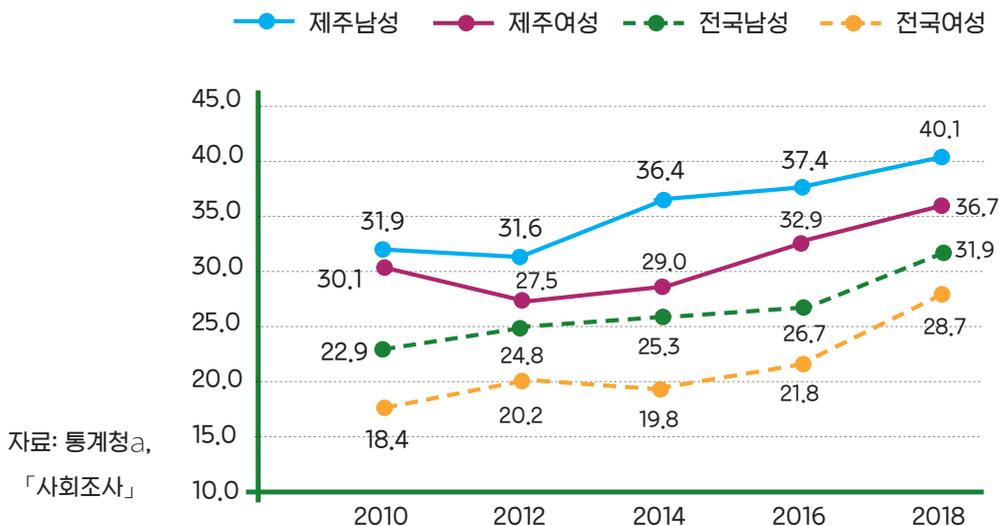
[그림 4] 제주도와 전국의 성별에 따른 결혼 없이 동거 가능 인식의 변화



3) 제주도는 전국보다 결혼 없이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더 강화됨

- 제주도는 결혼 없이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국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음([그림 5]). 제주도 남성은 해당 인식의 긍정적인 응답이 2010년에는 31.9%에서 2018년에는 40.1%로 8.3% 더 높아졌으며, 제주도 여성은 이러한 긍정적 응답이 2010년에는 30.1%에서 2018년에는 36.7%로 6.6% 더 높아져 주목할 만한 사항임.
- 제주도 및 전국은 각각 남성이 여성보다 이러한 인식이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남. 그러나 **제주도 여성이 전국 남성보다도 결혼 없이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제주지역 남녀 모두에게서 혼인 외 출생 인식이 개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2018년 기준으로 제주도 남성은 40.1%, 제주도 여성은 36.7%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국 남성은 31.9%로 제주도 여성이 4.8%p 더 높게 나타났음. 다만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은 결혼 없이 동거할 수 있다는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여기는 비율이 20% 정도 더 낮았음.
- 지금까지는 법률혼에 기반하여 출생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결혼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결혼 없이도 자녀를 가지는 가족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따라서 **제주도의 가족정책 설계 시 동거가족에 의한 자녀 출생에 대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가족 욕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림 5] 제주도와 전국의 성별에 따른 결혼 없이 자녀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



4. 정책적 시사점

1) 저출생에 대한 정책적 대응 시급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법률혼에 의한 출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주도에선 혼인율이 감소하고 결혼필요성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제주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과 관심이 매우 요구됨.

2) 혼인율 감소 및 결혼필요성 인식 약화에 대한 원인 분석의 필요

- 제주도에선 혼인율 감소 및 지연, 제주도 여성의 결혼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급격한 감소는 출생율 저하뿐만 아니라 가족형태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제주도의 저출생 및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혼인 및 결혼필요성 인식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함. 특히 여성의 결혼필요성 인식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유를 심층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임.
- 해당 사항들에 대하여 전국 및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있으나 제주도에선 관련 연구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추후 연구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를 심도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3) 다양한 가족의 발현에 따른 다양한 가족정책의 수립

- 제주도에선 전국보다 결혼 없이 동거를 하거나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더 높으며 그 증가폭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변화들은 동거가족의 급증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는 동거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이 정책적으로 부족하나 앞으로는 제주도의 동거가족의 욕구 파악을 통한 이들의 지원이 가족정책에 잘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법률혼에 기인하여 발생했던 전통적인 가족에서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중백(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67-189.
- 김혜영·선보영·김상돈(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민소담(2018). “강원도 ‘저출생 현상’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다양화 방안”. 정책브리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신승배(2018). 「2018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가족의 삶」.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심인선(2018). “경상남도 청년의 결혼과 출산 인식”. 「경남발전」. 141. 48-64.
-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a, 「사회조사」.
통계청b, 「인구동향조사」.
- 홍승아(2016).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확장”. 「젠더리뷰」. 42.
- 홍승아·최인희·김난주·김지미(2018).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